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HELLO NEXEN

HELLO NEXEN MAGAZINE

A New Year 2019 Vol.74

#Movement

www.nexentire.com



hello nexen

2019 신년호

네센타이어

CONTENTS

Movement



06	<u>Theme</u> 내딛는 한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다
10	<u>Move On</u> 넥센타이어 변화와 혁신의 주역! CHANGE AGENT
14	<u>Young Energy</u> 글로벌 MES팀
20	<u>Moving Talk</u>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22	<u>With NEXEN</u> 겨울애 일 잘하는 넥센인
28	<u>Zoom In NEXEN 1</u> 제55회 무역의 날 9억 불 수출탑 수상
30	<u>Zoom In NEXEN 2</u> 화합의 축제, 한마음 창녕공장
34	<u>Zoom In NEXEN 3</u> 넥센타이어, 英 맨시티 한국 트로피 투어에 후원하다
36	<u>People & People</u> 칭찬합시다

Lifestyle



40	<u>Action Life</u> 그림왕 양치기, 양경수 작가
44	<u>NEXEN Value</u> 일과 삶,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즐겨라
48	<u>Travel Tomorrow</u>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
54	<u>We 튜브</u> 추억 속의 어느 멋진 날
58	<u>Culture Road</u>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62	<u>NEXEN Think-big</u> 나만의 한 단어
64	<u>I Can Save</u> 지구에 대한 예의, 잘 지키고 있나요?

Report

70	<u>Best Partner</u> 타이어테크 현풍점
74	<u>Hero 1</u> (양)환경안전팀, 경남 소방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76	<u>Hero 2</u> 넥센타이어, 첫 번째 국가품질명장 탄생
78	<u>NEXEN News</u>
82	<u>참여 안내</u>



2019 Vol.74

표지 이야기
〈HELLO NEXEN〉알파벳으로 이뤄진 패턴이 타이어가 되어 'Movement'를 만듭니다. 2019년에도 해도 잘 굴러가는 넥센타이어와 넥센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9년 신년호 통권 74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19년 1월 9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문화혁신팀 기획 및 출판 (주)하이미디어P&I (02-795-3364) 디자인 최은정, 한다연, 김지애 사진 사진과책 교정 이은실 프로세스 (주)하이테크컴 (02-741-3377) 인쇄 (주)신화씨애펬피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넥센타이어가 가는 방향이 곧 길이 됩니다.
그 길의 끝에 세계의 중심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 행동력이 필요한 순간

내딛는 한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다

무엇을 원하는가? 그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멈춰라. 지금 당장 꿈꾸는 목표를 위해 행동에 나서라.
작은 실천의 행동력이 꿈을 현실로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다.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내 삶의 변화는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시작되었다.

글/사진 김경수

사하라에 첫발을 내디딘 건 마흔 즈음이었다. 2003년 4월, 빅듀(Big Dune) 위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지구상 최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달릴 수 있을까? 사람은 평생 자신의 능력의 3%밖에 써보지 못하고 죽는다는데, 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는 흥분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살을 파고드는 태양열을 가르며 모래와의 사투 끝에 243km를 달려 나는 기어코 결승선을 통과했다. 내 삶의 가치가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빛나는 순간이었다.

김경수

서울 강북구청 도시재생과 팀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오마이뉴스 기자
사막·오지 레이스, 작가 겸 칼럼니스트,
블랙야크 셰르파

- ▶ '대한민국 청백봉사상' 수상(행정안전부, 2007년)
- ▶ '자랑스러운 홍익인상' 수상(2010년)
- ▶ 제3회 '대한민국선거 사진대전' 금상 수상(서울 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 ▶ '2013 올해의 닳고 싶은 인물상' 수상(전국NGO단체연대, 2014년)
- ▶ '제1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콘테스트 동상(중앙선관위, 2012년)

Start of Change



도전, 용기가 아닌 행동에 달렸다

16년 전 처음 도전한 사하라 사막을 시작으로 지구상 곳곳의 사막과 오지를 달렸다. 대부분의 레이스는 평균 5박 7일(하루는 24시간 무박 레이스) 동안 외부의 지원 없이 수백 km를 제한된 시간 안에 자신의 식량과 장비를 짊어지고 달려야 했다. 그렇게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사막을 건넜고, 알프스 산맥을 달렸다. 그랜드캐니언과 피시리버캐니언도 넘었다. 호주 대륙과 부탄 파로 계곡을 넘고 우유니 사막과 아타카마 사막도 건넜다. 인도와 스리랑카 정글을 뚫고 히말라야 임자체 코앞까지 올랐다. 그간 달려온 거리만 해도 4,000km가 넘는다.

운동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아니다. 휴가가 많은 혹은 휴가를 쉽게 낼 수 있는 직장인? 아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직업? 물론 아니다. 지하철에서 흔히 부딪히는 셀러리맨 중 한 명일 뿐이다. 어떻게 가능하냐고? 평범한 직장인,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중년 아저씨가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2013년 11월, 시각장애인 이용술 씨가 나의 레이스에 함께했다. 5박 6일 동안 캄보디아 북서부 정글 220km 레이스였다. 많은 오지를

경험한 나에게도 힘든 코스였기에 용술 씨에게는 더욱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레이스 둘째 날,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다. 흉탕물과 땀으로 뒤범벅된 채 용술 씨의 발바닥 전체가 물집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이다. 어쩌면 용술 씨를 향해 미련한 도전이었다고 혀를 찰 수도 있다. 그에게 끝을 알 수 없는 수십 km의 밀림과 습지는 지옥의 길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눈물 나는 고통을 참아냈고, 결국 나와 함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좌절을 만난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한 듯 포기를 선택한다.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하고, 자신이 없다며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힐난이 두려워 포기한다. 그리고 말한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사람들은 평소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잘 알지 못하는 만큼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나 역시 특별하게 뭔가를 잘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었다. 레이스에 출전할 때마다 여전히 '과연 도전과 열정만으로 사막과 오지를 횡단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잠재된 능력의 한계를 가늠할 수 없다. 때로는 계산보다 행동을 먼저 해야 할 순간이 있다.

한 걸음,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주변 환경이 힘겹고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낙담하기보다 정을 든 석공의 심정으로 자신을 다듬고 담금질해야 한다. 사막과 오지에서 나는 늘 그 마음을 되새긴다.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대자연 속에서 나는 나약한 자신의 일면을 끊임없이 긴장시키고 채찍질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었다. 그리고 사막과 오지에서 돌아오면 '한 걸음 더'라는 행동력이 자양분이 되어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있다. 업무에 쫓겨 사는 평범한 직장인, 휴가를 내는 것만으로도 회사와 가정의 눈치를 봐야 하는 중년의 가장이었던 내 삶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과 삶에서 '한 걸음 더'를 실천하면서 평범했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삶이 되었다. 삶과 일에서 실천한 행동력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직장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청백봉사상'으로 돌아왔다. 인생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진다고 했던가? 이후 나의 경험을 듣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아졌고, 남들 앞에 서는 게 죽을 만큼 두려웠던 나는 지금 대한민국 명강사(28호, 한국강사협회)의 칭호로 여러 강연장과 무대에 서고 있다. 그간 3권의 책도 출간했다. 물론 직장도 여전히 다니고 있다.

목표가 없으면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과녁은 명중시킬 수 없다. 목표를 몰각시키는 주적은 잡념이다. 잡념이 쌓일수록 할 수 없는 핑계가 꼬리를 물고 떠오른다. 하기 싫은 이유를 들이댈수록 목표는 잊혀간다. 나 역시 그만 멈추고 싶을 때가 있지만,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이유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삶의 목표가 잡념으로 가려지려 할 때 내딛은 작은 한 걸음은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목표를 더 잘 보이게 만든다. 너무 비장한 한 걸음일 필요는 없다. 그저 내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작은 행동이 목표를 향한 열정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들고, 그 끝에 이르게 한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열렸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소망하는 것이 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가슴속 열망이 자라 숨 쉬고 있다. 굳이 사막을 달리지 않아도 상관없다. 인생에는 달리기보다, 사막을 건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보고 싶은 열망'을 현실로 끌어내는 일이다.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 시작하되 늘 처음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혼신을 다한다면 생애 최고의 순간은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다. 아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힘이다. 



넥센타이어 변화와 혁신의 주역!

CHANGE AGENT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넥센타이어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Change Agent' 정예 요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넥센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CA 조직의 활기찬 움직임이 눈에 뵈도록 넥센의 장래는 밝습니다. 2019,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시도로 새로운 넥센타이어를 만들어나갈 그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글 문화혁신팀 정재환 과장 사진 정재환 과장, 이맹호



“넥센의 미래를 이끌어갈 변화와 혁신의 주역을 찾습니다.”

넥센타이어 CA는 내부로부터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나감으로써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넥센을 이끌어갈 리더를 육성 하고자 2017년 11월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친 30명의 정예 요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글로벌 CEO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순간!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사원·대리 직급으로 구성된 우리가 과연 의미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자발적으로 모인 정예 요원답게 매월 열리는 정기 모임과 사업장별 그룹 모임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집니다. (사실 CA들은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만큼 말도 참 많습니다.)

이밖에도 CA들은 일과 중 틈틈이 직원들의 VOC(Voice Of Customer)를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멘토-멘티제로 구성원 간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정기 메일과 사업장별 캠페인으로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곡 중앙연구소 현장을 찾기도 했는데요. 곧 다가올 마곡 시대를 맞이해 CA들이 어떤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지 고민하며 2019년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CA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텐데요, 2019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㉞

변화와 혁신은 우리로부터
CHANGE
 AGENT



넥센타이어를 움직이는 힘 글로벌 MES팀

넥센타이어의 국내외 공장들이 잘 굴러가는 원동력은 바로 이곳에서 탄생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도 본부에서도 이들의 역할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넓다.
기술도 뛰어난데 소통은 더 잘하는 팀이다.

글 조병래 사진 이맹호

◀ 왼쪽부터 배성한 대리,
성상경 대리, 박진영 사원,
유승리 대리, 배수득 파트장,
이홍주 팀장, 이병훈 과장,
임현준 사원



공장 운영의 원동력

글로벌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 시스템)팀은 양산공장과 창녕공장, 중국 청도공장과 유럽 체코공장 까지 벅센타이어의 모든 공장 시스템을 관할한다. 자동화, 4차 산업 혁명, 스마트 팩토리 같은 키워드가 주목받으수록 MES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공장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물류 및 작업 내역 추적 관리,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까지 타이어 제조의 모든 과정이 전보화될수록 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수기 때문이다.

이전에 이들의 이름은 정보전략팀이었다.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BS가 구성되면서 공장별 부서를 통합해 2016년 8월 지금의 글로벌 MES팀이 탄생했다. “회사가 성장하고 팀이 개편되면서 더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시스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죠.” 이흥주 팀장의 설명이다. 그가 국내외 모든 MES팀을 총괄한다.

양산공장을 담당하는 배수득 파트장, 성형공정 시스템과 생산 계획 시스템을 담당하는 이병훈 과장, 가류공정과 검사공정 담당 성상경 대리, 반제품 공정과 생산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배성한 대리, 그 옆에 IT 인프라를 담당하는 유승리 대리와 행정 총괄 박진영 사원, 설비

Hello **NEXEN**

관리를 맡고 있는 막내 임현준 사원이 취재팀을 맞아줬다.

생산해야 할 제품 수량을 예측하는 것부터 사람(Man), 설비(Machine), 재료 (Meterial), 방식(Method)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정보가 발생한다. 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공장 운영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 MES팀의 업무다. 이흥주 팀장이 덧붙였다. “벅센인들이 MES팀의 업무에 대해 잘 알기를 바랍니다. 업무에 관한 대화를 많이 주고받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으면, 그게 바로 회사 발전에 도움 되는 일이죠.” 회식 때면 우스갯소리처럼 한다는 건배사 ‘양산공장 들었다 왔다!’가 농담만은 아니다. 그 안에는 이들의 자부심까지 함축돼 있다.

우리의 원동력은 팀워크

작업 환경을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는, 벅센타이어 제조 과정에 꼭 맞는, 세상에 없던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며칠 밤을 야근으로 고생한 이들이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그 지난한 과정이 끝나고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의도대로 원활히 사용될 때다. ‘잘 쓰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그 효과가 데이터로 확인되어 ‘내가 만든 흔적이 현장에 있다’는 느낌이 들 때면 보람은 배가 된다. “현준 씨가 갓 입사했을 때 회사에 대해 알려주며 보란 듯이 말했죠. ‘이 프로그램 내가 만든 거야.’” 배성한 대리가 웃으며 말하자 팀원 모두가 공감하며 활짝 웃었다.

팀의 가장 큰 성과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자 배수득 파트장이 나섰다. “공장 내 설비를 전부 연결해 자동화한 겁니다.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정보시스템과 설비들의 양방향 통신을 가능케 한 거죠. 획기적인 작업이에요.” 스마트 팩토리의 탄생에 이들의 역할이 주효했다. 설비와 MES 시스템이 연결되고 수동 작업이 자동화되면서 오류도 크게 줄었다. 그 노하우가 창녕공장과 청도공장에 확산되었고, 그보다 업그레이드된 결과물이 유럽 공장이다. 오랜 역사 때문에 타 공장보다 많은 힘을 들인 양산공장도 2019년이면 최적화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이흥주 팀장이 말했다. “자동화·스마트화는 비용 절감보다 ‘효율’이 모토예요. 사람은 노동이 아니라 기계를 관리하는 지적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사람과 자동화는 상호 보완하며 공존해갈 겁니다.” 환경, 사람, 제품에 따라 시스템도 함께 변화한다. ‘일’의 조건에서 사람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각자의 분야에서 모두가 최고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MES팀.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은 바로 팀워크다. 인터뷰 내내 돈독한 팀워크를 보여준 이들에게 소속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묻자 이병훈 과장이 외쳤다.

“밥 먹으러 가자!” 다들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취재팀도 웃음이 터졌다. 일도 잘하는데 소통도 공감도 잘하는 팀이라 느껴졌다. 새해에도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MES팀이 되기를 응원한다. **N**





▲ 왼쪽부터 창녕공장 이재현 과장, 김용환 대리, 강치구 파트장, 하승완 대리, 정연우 과장

창녕공장과 청도공장 MES팀이



▲ 왼쪽부터 청도공장 정석원 파트장, 고산 대리(*현), 이대해 과장(현), 손용 사원(현), 왕문조 주임(현), 왕술 주임(현), 가신방 과장(현), 왕귀효 사원(현), 장란기 팀장(현)

* (현)-현재인

사진으로 <헬로우 넥센> 독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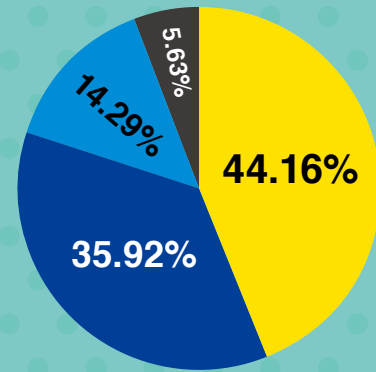
2019 황금돼지띠의 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2019 황금돼지띠의 해를 보다 긍정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넥센인들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세요. 지치고 의욕을 잃었을 때 다시 나를 웃게 하는 것, 힘을 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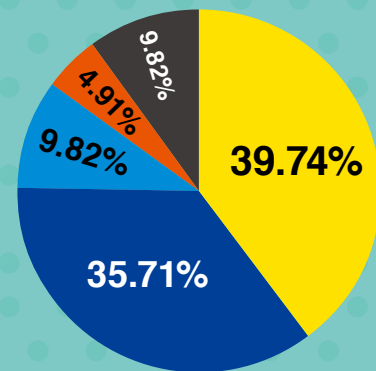
정리 조병래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 업무로 지쳤을 때 - 102명
-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 83명
- 좋아하던 일이 피곤하게 느껴질 때 - 33명
- 기타 - 13명
 - 1 저녁을 먹었을 뿐인데 벌써 자야 할 때 - 임영민
 - 2 퇴근길도 지쳐서 못 갈 것 같은 때 - 강두현
 - 3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다 지쳐 나도 모르게 모니터 보면서 멍하니 있을 때 - 전재갑

당신을 기운 차리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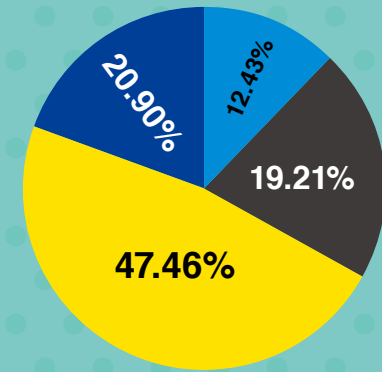


- 사랑하는 가족 또는 반려동물 - 89명
-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는 여행 - 80명
- 이루고 싶은 꿈과 미래에 대한 상상 - 22명
- 다가오는 월급날과 반복되는 카드빚 - 11명
- 기타 - 22명
 - 1 동료들 간 서로 믿어주는 마음 - 김경석
 - 2 일주일의 한 번 복권 - 문진석
 - 3 먹고 싶은 음식을 먹게 됐을 때의 그 희열 - 김형모

새해 가장 기대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 한층 성숙해질 나 자신 - 84명
-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일 - 37명
- 진급, 새 프로젝트 등 업무 관련 - 22명
- 기타 - 34명

1 취미로 하는 활동의 내년 성적 - 최상현
2 딸이 성장해 말하기 시작하면서 아빠에게 질문할 내용들 - 김성훈
3 마곡에서의 새로운 삶. Global R&D 중심으로서의 첫발을 디디게 됨 - 천경우



내가 타인의 원동력이라고 느껴지는 기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인가요?

- 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문득 실감할 때 - 이종우
- 내가 주최한 모임으로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 김소희
- 격려받던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있음을 느낀 순간 - 조동희
- 고객만족 업무 중 고객의 불만과 불신이 믿음과 신뢰로 바뀌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며 감사 인사를 할 때 내 업무가 타인에게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 유민
- 날 보고 웃어줄 때 - 이도연
- 내 가치관을 상대가 인정하고 내 행동에 동참 혹은 모방할 때 - 최재석
- 새로운 부서에 발령받은 후 주변 사람들이 좋은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느낄 때 - 유재훈

나의 원동력에게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하고 싶은 말을 써주세요.

- 항상 환하게 웃어주는 우진아. 네 덕분에 힘이 난다!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게! - 박성현
- 이제 시작이야. 힘내자 파이팅! - 권봉진
-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 박창근
- 자신에게 조금만 더 관대해지자. - 김옥재
- 마이너스 통장아. 조금씩 줄어가는 널 보면서 나는 힘이 난단다. 0이 될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볼게. - 김건호
- 나태해지지 않게, 희망을 잃지 않게 언제나 옆에서 독려해주고 힘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 곽재련
- 존재 자체에 감사합니다. - 김기현



올해도 배추는 노구소에서

'배추 잘 뽑는' 넥센인들이 지난해 11월 1사1촌
결연을 맺은 강원도 노구소 마을에 배추 수확
봉사를 하기 위해 모였다.

겨울愛 일 잘하는 넥센人

강원도 횡성과 경남 양산에서 넥센인들이 이웃을 위해 따스한 마음을 모았다. 밭에서 직접 수확한
싱싱한 배추에 맛있는 양념을 버무려 김장김치를 담그고 어려운 이웃과 나눴다. 찬바람 부는
계절이지만 이들이 모인 곳에는 훈훈한 열기가 가득했다.

글/사진 문화혁신팀 김혜인



2011년부터 8년째 넥센타이어와 자매결연 관계인 노구소 마을에 사원, 대리부터 부장까지 다양한 직급의 사우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당일 아침까지 내린 비에 땅이 젖어 작업이 쉽지 않았다. 운동화에 진흙이 묻고 옷과 장갑이 젖어 불편했지만 사우들은 열심히 배추를 옮겼다. 어느 순간 사우들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마을 주민들이 먼저 배추의 밀동을 잘라내면 사우들은 뒤따라 걸음을 떼고 배추를 바구니에 담아 지게차에 싣거나, 창고에서 배추 쌓는 일을 했다.

작업을 마치고 늦은 점심시간을 가졌다. 사우들은 옷과 신발의 먼지를 털고 마을회관 앞으로 모였다. 마을 어르신들이 삼겹살과 배추를 한 상 가득 준비해주었다. 음식을 먹는 동안 노구소 마을의 저녁이 깊어갔다. 사우들은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글 조병례 사진 이맹호

우리 손으로 만든 김장김치

이날 수확한 배추는 '김장 잘하는' 넥센인들이 넘겨받았다. 양산 본사가 마련한 11월 21일 '김장 나눔 행사'에 110명의 넥센인이 자원해 힘을 모았다.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김장에 배추 2,000포기가 동원됐다. 장갑과 마스크, 모자와

위생복을 단단히 갖춰입은 넥센인들이 길게 늘어선 테이블을 둘러싸고 모였다. 절인 배추에 꼼꼼히 양념을 바르는 모습이 진지하다. 배추를 버무리는 일 외에도 새 배추를 테이블에 풀어놓거나 양념한 배추를 포장해 상자에 담는 작업까지, 특별히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장시간 한자리에 서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작업이 고될 텐데도, 준비한 배추가 소진될 때까지 넥센인들은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한마음으로 손을 움직였다. 구매팀 정승환 과장은 "처음으로 김장 행사에 참여해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반드시 참여할 생각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완성한 김장 400상자는 고구마 400상자와 함께 양산시 복지재단을 통해 소외 계층 400가구에 전달했다.

모든 작업이 끝난 후 박주홍 노조위원장은 "추운 날씨지만 넥센인들이 제공한 김장과 고구마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재수 글로벌생산BG장도 "세 번째로 열린 김장 행사에 참여해 뜻깊습니다. 넥센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했으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라며 인사했다. ㉞



제55회 무역의 날 9억 불 수출탑 수상

글 넥센타이어 보도자료 사진 이맹호



▲ 생산부문 이성진 과장, 박강철 아시아영업BG장

넥센타이어가 '제55회 무역의 날'을 맞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억 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7일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최고성능 타이어(UHPT) 등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증가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9억 불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는 1995년 1억 불 수출탑 수상 이후 2005년 2억 불, 2006년 3억 불, 2007년 4억 불, 2010년 5억 불, 2012년 7억 불, 2016년 8억 불을 거쳐 2018년 9억 불 수출탑을 달성하며 꾸준한 실적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자동차 시장 위축, 업체 간 경쟁 심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제품 경쟁력 강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 그리고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수출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현재 세계 주요 150여 개국 500여 딜러를 통해 타이어를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날 9억 불 수출탑 수상과 함께 김현석 유럽영업마케팅BS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생산부문의 이성진 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9월 독일 R&D센터와 영업사업부를 통합 이전했으며, 지난해 12월 미국 R&D센터 신축 확장과 향후 체코공장 가동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매출 성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풋살 및 노래 대회 등 다양한 오락거리 마련

화합의 축제, 한마음 창녕공장

창녕공장의 모든 가족이 모여 신나는 축제를 펼쳤다. 복면으로 자신을 감춘 채 웬만한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을 자랑한 노래 대회와, 예상 밖의 결과로 파란을 일으키며 강력한 우승 후보를 긴장하게 한 풋살 대회로 구성되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창녕공장의 축제 현장을 소개한다.

글/사진 노사협력팀 이강우 대리

FESTIVAL



팀워크로 빛난 축제

창녕공장 노사화합 한마음축제가 지난해 10월 14일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임직원 및 가족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상문 창녕생산BS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임직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화합과 소통을 위한 자리로, 사전 경기로 진행된 풋살 대회와 창녕공장 최고의 가창왕을 뽑는 '복면가왕' 노래 대회로 구성되었다. 또한 넥센타이어 GT밴드의 오프닝 공연과 임직원 모두가 참가하는 복불복 OX퀴즈 등 다양한 오락 행사가 펼쳐져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화합의 축제였다.

풋살 대회는 10개 팀이 참여해 추첨을 통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7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대회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힌 성형파트1팀은 또 다른 우승 후보 정련파트팀을 꺾고 결승에 올랐다. 반면 약체로 평가받던 연구소팀은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예상 밖의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했으나, 성형파트1팀의 아성을 넘진 못했다. 그 결과 최종 1위는 성형파트1팀, 2위는 연구소팀, 3위는 정련파트팀이 수상했다.





MOVEMENT | Zoom In NEXEN 2



창녕의 가왕은 누구?

노사화합 한마음축제 메인 행사로 진행된 창녕공장 '복면가왕'은 철저한 보안 속에 예선을 치렀고, 본선에는 총 12개 팀이 진출해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을 뽐냈다.

창녕공장 임직원 및 가족, 협력업체에서 선발된 12팀의 본선 참가자의 무대가 진행될 때마다 관객들은 뛰어난 노래 실력에 감탄하며 참가자가 누구인지 궁금증을 키워갔다. 아쉽게 탈락한 참가자의 복면 속에서 익히 아는 얼굴이 등장할 때마다 객석에서는 환호와 찬사가 터지기도 했다. 치열한 경연 끝에 1위를 차지한 가왕은 엄청난 고음을 소화한 가창력의 소유자 '깜장고양이'였다. 1위는 복면을 공개하지 않는 특혜를 누렸고, 2위는 성형파트 안성환 사원, 3위는 설비파트 최성환 사원이 수상했으며, 인기상은 협력업체(에코넥) 진경희 사원, 분발상은 금형파트 신동곤 사원,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신나는 무대를 보여준 전기파트 박수빈 사원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조상문 창녕생산BS장과 강인구 지부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2018년 창녕공장 노사화합 한마음축제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 모두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㉞





타이어테크 마곡점에서 우승 트로피 전시

넥센타이어, 英 맨시티 한국 트로피 투어에 후원하다

글/사진 넥센타이어 보도자료



넥센타이어가 공식 파트너사인 맨체스터시티 FC(이하 맨시티)의 2017/18 영국 프리미어 리그(이하 EPL) 우승을 기념하는 글로벌 트로피 투어 한국 방문에 동참했다.

맨시티는 2017/18 EPL 우승을 기념해 글로벌 투어인 '맨체스터시티 FC의 CENTURIONS 트로피 투어(ETIHAD AIRWAYS 제공)'를 진행했다. 지난 11월에는 한국을 방문해 'EPL'과 '카라바오 컵' 우승 트로피를 전시함으로써 국내 팬들은 우승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넥센타이어는 맨시티의 '오피셜 슬리브 파트너'로서 다른 후원사들과 함께 한국 투어에 동참. 넥센타이어의 타이어 전문 매장인 타이어테크 마곡점에 트로피를 전시했다.

또한 넥센타이어는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SNS 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이벤트는 넥센타이어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었으며, 당첨자에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및 맨시티 선수 피규어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맨시티를 2015년부터 공식 후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EPL 최초로 '오피셜 슬리브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맨시티를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꾸준히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칭찬합시다

동료의 칭찬과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친 하루에 큰 위안이 됩니다.
항상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동료에게 고마운 마음을 잘 전하고 계신가요?

마음은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헬로우 넥센>이 전해드립니다.

정리 이다영



◀ 문정섭 파트장

(양) TPM파트 문정섭 파트장이 (양) 환경안전팀 박지호 과장에게

요즈음 방송 및 인터넷 뉴스 등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수많은 범죄 사건뿐 아니라
가족인 부모·형제 간에도 좋지 않은 사건·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세상이 많이 삭막하고 사람이 무섭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출근했을 때 해맑은 미소를 띤
마음이 아름다운 후배를 볼 때면
그래도 사람이 좋고 세상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인공은 양산공장 환경안전팀에 근무하는 박지호 과장입니다.
삭막한 현대에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박지호 과장 스토리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박지호 과장은 몇 달 전 친형의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형을 위해
서슴없이 본인의 간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형제 우애를 본인의 몸으로 직접 보여준 그는
우리 넥센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회의 진정한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간이식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상 환경안전팀을 방문했을 때
본인의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불편한 와중에도
해맑은 미소와 함께 “파트장님!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세요”
하면서 타준 커피 한잔은 정말 천사가 타준 사랑의 차였습니다.
그때 마신 사랑의 커피 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장 선후배 간에도 예의 바르고
본인의 업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박지호 과장!
그대를 우리 넥센의 천사라고 부르고 싶다.
박지호 과장! 그대는 우리 넥센타이어의 천사이고,
정말 짱이야! 박지호 과장! 파이팅!

박지호 과장 ▶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함께하면 에너지는 배가 됩니다.
함께하면 더 멀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림왕 양치기, 양경수 작가

내가 그린 그림은 약이 되는 그림

타고난 센스에 관찰력을 더한 작품으로 독자들의 가려운 곳을 마구 긁어준다. 웃, 하고 웃으면서 가려움이 가시면 당분간은 또 일할 기운이 난다. 나의 움직임이 무엇을 향하는 것인지, 고충은 또 무엇인지, 누군가는 알아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 현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속해나가는 힘은 거기서 나온다.

글 조병례 사진 이명호

누구도,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아마 드물 거다. '일하기 싫어증' 걸려보지 않은 직장인은. 양경수 작가의 첫 책 <싫어증 입니다, 일하기싫어증>은 표지만으로도 모든 직장인이 한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이 책은 대만과 일본에서도 출간됐는데, 특히 일본어판은 <拒職症(거직증:직장을 거부한다) シンドロム(신드롬)>이라는 제목으로, '음식을 거부한다'는 '거식증(拒食症)'과 같은 일본식 발음을 이용해 현지의 감성을 살리면서 '일하기 싫어증'이 만국 공통임을 확인시켰다.

그는 책 출간 이후에도 다양한 브랜드와 컬래버하거나 굿즈를 출시하며 소셜미디어에 작업물을 게시해 '좋아요'를 무수히 획득하고 있다. 변함없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재치와 센스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작 그가 '일하기 싫어증'에 빠진 적은 없었을까?

인터뷰를 위해 양경수 작가의 작업실에 방문하자 그의 에이전시 대표가 동석해 있었다. 두 사람은 돈 한 톨 없던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고, '헛소리'에 불과할 것 같던 별별 아이디어를 곧 직업으로 만들어 성장한, 서로 '리스펙트'하는 사이란다.

알고 보니 양경수 작가에게는 이렇게 영감을 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나이와 성별 불문, 종사하는 직군도 다양하다. 동료 아티스트뿐 아니라 래퍼, 사업가, 정치인 등 이야기 나누다 보니 새로운 분야의 인물들이 끝없이 등장했다. 8가지 직군의 애환을 '폭풍위로'하는 책 <잡Job다多한 킷> 작업 중에는 친구들로부터 취재원을 소개받고 그 취재원을 새로운 친구로 만들었다. 인맥관리에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잘 맞는 사람과 어울린다는 건 남들과 똑같은데, 스펙트럼이 좀 넓죠.



최근 일본 여행에서는 갑작스럽게 파티 공지를 올렸는데 30명이나 나와주셨어요. 작품 덕분에 서포터즈가 생긴 느낌이라 든든하고 무척 감사해요.” 주어진 환경을 잘 포용하고 활용하는 게 그의 강점인 듯싶다. 어떤 것이든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그이기에 〈잡Job다좋은 것〉의 한 직군 연재가 끝날 때마다 관련된 단체에 수익금을 기부했다. 순직소방관 자녀, 미혼모 가정이나 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가리지 않았다.

대중이 열광한 힙스터

그가 제일 기억에 남는 전시회로 꼽는 2016년 네덜란드 국립세계문화박물관 ‘더 붓다’전에 참여한 것도 친구의 조언을 진지하게 여긴 데서 가능했다. 부처의 일생을 여덟 단계로 나눠 그린 〈팔상도〉가 ‘사이키델릭’에 열광하는 해외 시장에서 열풍을 일으키리란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의 작업실 한가운데 걸려 있는 〈팔상도〉중 일곱 번째 장면 ‘녹원전법상’은 특히 압도적이다. 휘황찬란한 조명, 분위기에 취한 듯 열광하는 사람들, 그 중심에서 강력한 포스를 풍기고 있는 선글라스 낀 부처.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대중에게 설법한다는 내용인데, 양 작가는 부처를 21세기 힙스터로 재해석했다. “최상류층이던 석가모니가 모든 걸 버리고 수행한



다음 가르침을 전파했고 제자들이 생겼잖아요. 아이돌처럼 팬덤이 생긴 거죠. 클럽에서 디제잉하는 부처와 거기에 빠져든 사람들, 자연스럽게 그림의 콘셉트가 떠올랐어요.” 전 세계 불교 문화재를 모은 ‘더 붓다’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의 작품과 ‘팔만대장경’만이 초청받았고, 아시아 13개국 중 현대미술 작가로는 양경수 작가와 일본의 〈우주소녀 아톰〉, 〈붓다〉를 그린 작가 데즈카 오사무가 유일했다. 전시는 암스테르담과 레이던에서 6개월씩 이어졌다.

매일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이 기회로 그는 작가로서의 삶에 더욱 확신을 얻었다. 어린 시절부터 불교 미술에 노출돼 영향을 받았고, 오래 그림을 그려온 그에게 이 확신은 더 많은 가능성을 가져다줬다. “작가로 계속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일러스트 작업도 활발히 하는 저의 정체성은 현대미술가 ‘양경수’와 일러스트를 그리는 ‘그림왕 양치기(治己:나를 다스린다)’ 두 개예요.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앞으로도 꾸준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이어갈수록 〈헬로우 넥센〉신년호 주제 ‘무브먼트’라는 단어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인물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다. 끊임없이 작품을 발표하고 강연을 하고 외부 활동을 지속한다는 뜻의 움직임은 물론이고, 늘 새로운 것을 고민하는 그의 머릿속까지 포함한 표현이다. 드라마를 보며 쉬는 시간에도조차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뭔가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의 꼬리 물기가 멈추지 않는단다. 그렇게 새로 시작한 사업이나 동료 아티스트 컨설팅 등 본업 외 활동이 꽤 많다. 대체로 결과도 좋다. 새로운 시도가 성공할 거란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간 거절당한 경험은 없었는지 물었다. “스무 살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0에서 시작했으니까 무슨 일이든 두 시간 하고 1만 5,000원 벌 수 있으면 저한테 그게 성공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계속 발전해왔어요.” 맞다. 대단히 큰 움직임이어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걸 양경수 작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매일 조금씩만 더 움직이자. 언젠가 돌아보면 그 움직임이 약이 되어 가치를 발견하게 할 것이다. ^㉞

평범한 직장인의 워라벨 사수기

일과 삶

일과 삶에서 나를 균형을 맞추며 살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일이
홍수처럼 범람하면서 균형을 잃어버렸다. 도대체 어떻게 워라벨을
맞추란 말인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 생활 패턴에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글 정성갑(디자인프레스 / 네이비디자인 편집장)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즐겨라

지난해 3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장을 옮겼다. 15년 만의 이직이었다.

그전에는 종이 잡지에서 일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워라벨의
화신이였다. 연차는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올 클리어’했고 계절마다

가족 여행을 다녔다. 그렇다고 일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었다. 마감
일정을 지키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아는
선배들은 온라인은 녹록지 않을 거라며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했다.

일 잘한다고 소문난 능력자 선배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언했다.

“워라벨, 개나 쥐버려.”

개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출근과 함께 워라벨은 남의 일이 되었다.
마음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월간지 마감이 월 1회라면 온라인

미디어의 마감은 ‘그냥 수시’였다. 일은 파도와 같다고 했던가.

크고 작은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와 어느 때는 화장실도 못 가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허리에도 탈이 생겨

일주일 넘게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일이 많고 신경 쓸 것이 많다 보니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아내는 나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 이게 뭐냐며, (본인이) 감기 걸린 것도
모르지 않았냐며 서운해했다. 이럴 때 남자들은 폭발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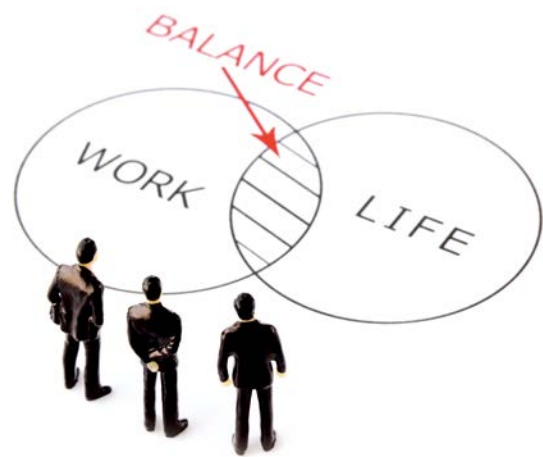
‘아, 나도 괴롭다고!!’



일과 삶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워라밸’의 기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 가능한가?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일과 인생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회에서 두부 자르듯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바쁜 시기에 워라밸을 잠시 포기하고 직무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꼰대’인 걸까? 최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워크디자인위크〉 행사가 열렸다. 일의 비전을 주제로 일 잘하기로 유명한 ‘선수’들이 강연자로 나섰다. 대기업 영업직부터 프리랜서 기획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현장을 보며 한국에서 워크(Work)가 라이프(Life)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새삼 실감했다. 워라밸이 어려운 건 ‘워크’가 ‘라이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즐길 수 있으려면 확실한 ‘일’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을 잘해야 한다는 이 슬픈 역설.

요즘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한 달, 1년의 위라백을 틈실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추는 사람들이다. 소설가 김영하가 대표적이다. 그를 ‘모험가’로 정의하며 인터뷰한 적이 있다. 2008년 그는 집을 팔면서 앞으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글을



쓰겠다고 공언했다. 아이가 없더라도, 베스트셀러가 많아 인세가 정기적으로 들어와도, 일반 직장인에 비하면 시간이 자유로운 직업 소설가라고 해도 쉬운 결정은 아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유목민처럼 사는 듯하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새로운 단골식당을 만들며 충만하게 살아간다. 집필 활동도 꾸준히 한다. 이 밸런스를 위해 그는 의례적인 가족 모임이나 애매한 결혼식 참석은 깨끗하게 포기한다. 그렇게 마련한 시간에 책을 읽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여행을 떠난다. 중요한 가치와 방향을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함으로써 일과 인생의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것이다.

〈미쳐야 미친다〉를 포함해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도 존경하는 분이다. 동서양 고전에 통달해 강연 요청이 쇄도하지만, 그는 ‘내 하루’를 지키기 위해 거의 응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대중 강연은 안 해요. 강연, 가면 좋아요. 돈도 많이 받고, 그런데 오며 가며, PPT 자료 준비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남의 떡은 절대로 공짜로 먹는 게 아니에요. 돈맛을 들여 자주 강연을 다녔으면 책도 많이 못 썼겠지. 마음을 자꾸 바깥으로만 두면 나중엔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일 속에 삶이, 삶 속에 일이 있다

직장을 옮기면서 워라벨을 사수하지 못하는 현실이 처음에는 괴로웠다. 엑셀과 파워포인트만 하다 한두 주가 훌쩍 가는 날에는 이게 사는 건가 싶기도 했다. 그러다 스스로 찾은 방법이 좀 더 큰 시각에서 ‘오늘’을 보자는 것이다. 오늘 하루, 지난 한 주의 삶이 워라벨에서 멀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억울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삶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오늘의 치열한 시간이 인생에서는 의미 있는 기간일 것이라 생각한다. “워라벨, 개나 줘버려”라고 공언할 정도의 강단은 안 생겼지만, 일도 라이프라고 여긴다. 어렵게 느껴졌던 일이 조금씩 쉬워지고, 일의 보람과 의미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

이제 나는 워라벨을 사수하기 위해 몇몇 새로운 방법을 동원한다. 첫째 출근길에 회사 주차장에 도착해 바로 내리지 않는다. 시동을 끄고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듣고 내린다. 어떨 때는 눈도 지그시 감는다. 전장(戰場)에 들어가기 전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다. 둘째 주말을 음미하듯 보낸다. 물론 심신이 피곤하지만 주말 중 하루는 1~2시간 일찍 일어나 인왕산을 산책하고 돌아온다. 베스트셀러 <매일 아침 써봤니?>로 유명한 김민식 MBC PD가 일러준 방법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 움직이면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충만감이

차오르면서 일과 휴식의 밸런스가 조금은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다. 오전 11시쯤 몸이 슬슬 노곤해지면서 잠의 요정이 찾아올 때는 행복하기까지 하다. 셋째 퇴근 후 아내와 산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무릇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아내는 아내대로 나는 나대로 피곤해 지킬지 못하는 날이 많지만 20%의 에너지라도 남아 있으면 함께 나가려고 노력한다. 그마저 어려울 때는 하루에 한 번 카톡으로 밥은 먹었는지, 저녁 메뉴는 뭘지 묻는다. 평범한 인간인 나는 뒹뒹 그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또 하루를 살아간다. ㉞



HEALLENCE SEONMAEUL

의도된 불편함 속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

힐리언스 선마을

더 빠르고 더 편하게 간소화되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조금한 마음을 내려놓고
불편하지만 느낌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나본다. 나를 묶어두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글 조용식 사진 조용식 · 힐리언스 선마을



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에 만난 홍천 종자산은 한 폭의 풍경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에 얼굴이 밝아진다. ‘언제 이런 공기를 또 맛보겠는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힐리언스 선마을을 찾았다.

웰컴센터에서 들어준 짬막한 영상을 통해 이곳에서의 1박 2일을 미리 맛보기도 했다. 생소하면서도 잔뜩 부풀어오는 기대감에 얼굴에는 홍조가 든 듯 화끈거림이 느껴진다.

가파른 언덕길 위의 포근한 안식처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숲속동이 오늘의 숙소입니다.”

‘전망 좋은 곳’이라는 말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렸다. 하지만 숙소까지 올라가는 길은 여간 고생이 아니다. 숲속 유르트를 지나고, 정원동으로 난 길을 돌아서면 경사진 비탈길과 계단길이 서로 오라고 손짓한다. 이미 무거워진 발걸음을 토닥이며 계단길로 올라선다.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와야 하는 걸까” 하고 엄살을 부려보지만, 이것이 전부 아니다. 분신 같은 휴대폰은 전혀 터지지 않으며, 포근한 안식처에는 TV나 냉장고, 에어컨 같은 시설이 없어 불편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힐리언스 선마을에서의 이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홍지숙 힐리언스 선마을 고문은 “저희의 ‘의도된 불편’은 세상의 잡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곳에서 불편함을 경험한 분들이 다시

찾아오는 것은 불편함을 통해 잊지 못할 휴식을 맛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어차피 터지지 않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려봐야 눈만 아프고 손목만 힘들다. 그럴 바에야 힐리언스 선마을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요가 강습을 받기로 했다.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끌어올려 발바닥이 편안하게 지면에 닿은 다음, 배에 손을 얹고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보내세요. 이 동작을 반복하는 이유는…”

강사의 말에 따라 몸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긴장감이 줄어들고 평온한 감정이 느껴진다. 눈을 감고 몇 번의 호흡 조절을 하는 동안 잠이 들 정도로 편안함을 느꼈다. 덕분에 아침마다 호흡 조절을 하는 버릇이 생겨났다.

피톤치드가 뿜어나오는 산속에서의 명상

요가 강사의 안내로 종자산에서의 명상과 트레킹 코스를 거닐기로 했다. 힐리언스 선마을 안내도 앞에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명상을 위해 개인용 매트 하나씩 어깨에 메고 발걸음을 옮긴다.

트레킹 코스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황토찜질방과 스파 시설이다. 명상과 트레킹을 한 후 피로 해소,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 가득한 공간이다. 아침저녁으로 산책 후 이곳에서 온기를 느끼며 피로를 풀 수 있어 자주 찾던 곳이기도 하다.

가을의 추억이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으며, 구불구불 이어진 종자산 길을 걷는다. 하늘을 향해 짙게 뾰는 잣나무 숲을 지나면서 모두 “공기가 다르다”며 한껏 숨을 들이마신다. 피톤치드가 가장 왕성하게 뿜어나온다는 잣나무 숲에서 잠시 잣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시작됐다.





“잣송이를 쉽게 채취하기 위해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에게 훈련을 시켰대요. 잣을 쉽게 딸 수 있어 인건비도 절약되고, 원

숭이도 재미있게 일해서 다들 좋아했대네요. 그

럼 지금도 원숭이가 잣을 딸까요?”

대답은 ‘판다’, ‘안 판다’로 쉽게 갈렸다.

“처음에는 원숭이가 잣을 쉽게 따서 인건

비 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나중

에는 털에 잣의 송진이 묻는 것이 싫어 원

숭이가 올라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요. 결

국 원숭이를 이용한 잣 채취는 기대와 다르게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숲속 강의장에 도착했다. 숲에

강의장을 세운 이유는 많은 양의 피톤치드가 뿜어나와 치유 효

과가 높기 때문이다. 명상 매트를 깔고 호흡 명상과 함께 편

하게 누워본다. 잣나무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 마음 편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만일까? 한참을 누워 하늘을 바

라보다 눈을 감아본다. 바람 소리, 새소리, 낙엽 구르는 소

리 등을 이렇게 크게 들었던 적이 언제

였던가 하는 생각이 밀려든다.



하루만 지내도 ‘30분 식사’ 식습관 배울 수 있어

다시 ‘사브작’ 낙엽을 밟으며 길을 걷는

다. 사색 1코스 길을 따라 걸어가면 비채

식당이 있는 봄동을 만난다. 비채식당에

서는 신선한 제철 재료, 친환경 식품으

로 만든 선마을의 웰에이징 내추럴 밥상을 만날 수 있다. 끼니마다 준비

한 자연 청춘 밥상이 차려져 있다. 식탁에는 30분용 모래시계와 간식인

과일이 놓여 있다. 과일의 단맛으로 식사량을 조절하고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식사 전 과일을 먼저 먹으라고 권한다.

모래시계의 의미는 30분 동안 식사하기다. 식사할 때 10번 이상 씹어야

만 침에서 소화 기능을 돕는 침샘이 분비되어 건강하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 한 참석자는 “평소 식사를 얼마나 빨리하는지 새삼 느낀다”며

“나름대로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여유까지 부렸는데 20분을 넘지

못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힐리언스 선마을에서 1박 이상을 보내면 30분

식사하는 식습관을 배우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이제 소화도 시킬 겸 잠시 산책을 나선다. 초겨울 날씨에 몸이 잔뜩 움츠

러들었다면 종자산 마당 격인 천지인 광장에서 명상 의자에 누워 따사로운 햇살에 기지

개를 켜는 것도 좋다. 매월 둘째 · 넷째 주 주말이면 이곳에 건강 먹거리와 아트 상품을

판매하는 ‘선말 숲 마켓’이 들어선다. 바로 아래에는 장독대가 맞이하는 길이 보인다. 이

길을 걸으며 만나는 황토 불에서의 발 마사지, 그리고 저녁이면 따스한 온기를 품은 모닥

불과 함께 별을 바라보며 담소를 즐길 수 있는 키바도 놓칠 수 없다.

가을동, 겨울동에서 즐기는 체험과 휴식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위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떨어지는 가을동에는 차와 음악, 책을

즐길 수 있는 가든 뮤직 카페가 있다. 주말이면 가든 뮤직 홀에서 열리는 힐링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다. 바로 옆 겨울동에서는 이시형 존장의 호인 ‘효천’을 따서 지은 효천갤러

리에서 다양한 모습의 꿈 조각을 만날 수 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고, 느릿느릿 건강한 식사를 즐기고, 종자산 구석구석을 다니며 자

연을 만난 1박 2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꾸어가는 데 작은 보탬으로 남는 시간이었

음에 감사한다. 새해에는 한 순간 쯤 의도된 불편함 속에 나를 내려놓아보자. 그 불편함이

오히려 자유로움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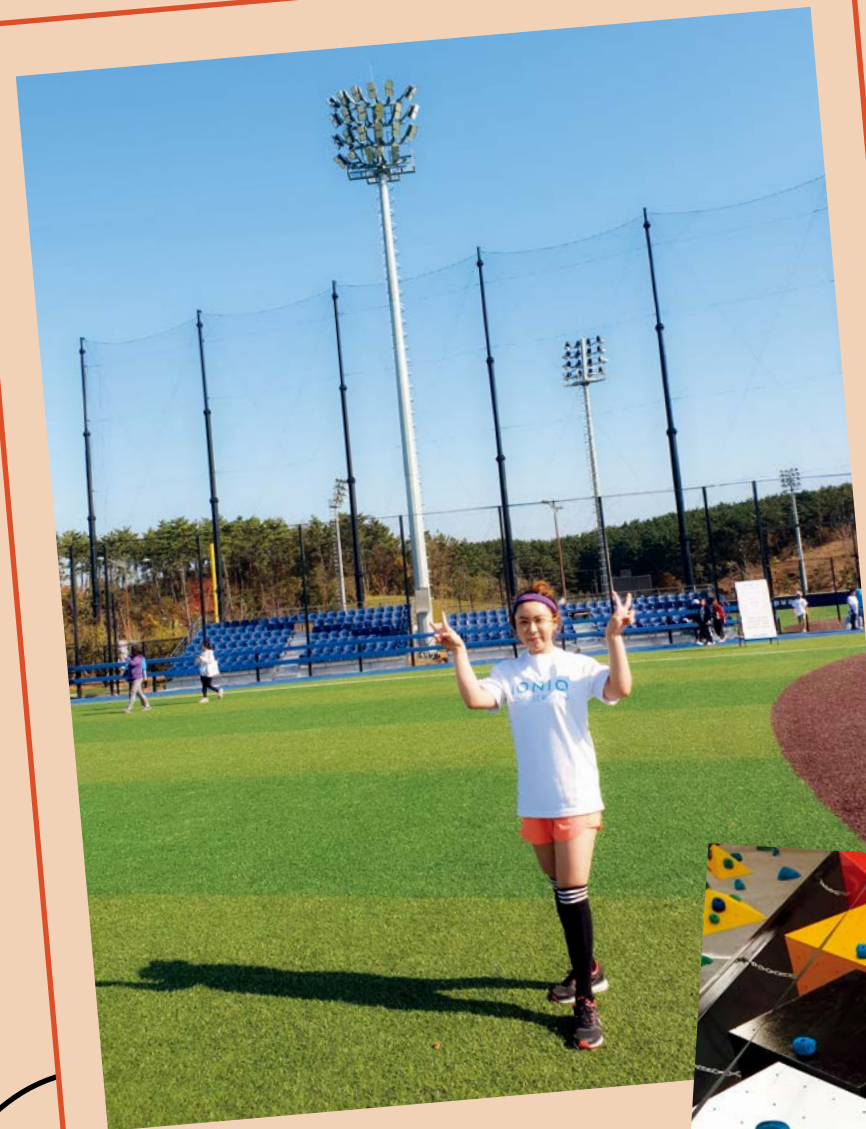
힐링되는 순창 단풍 구경

지난해 11월 10일 토요일.
순창 강천산, 늦은 단풍 구경
다녀왔습니다. 힐링 힐링.
주말에 좋은 곳 많이 다니세요.
(창)물드삼 최지웅

추억 속의 어느 멋진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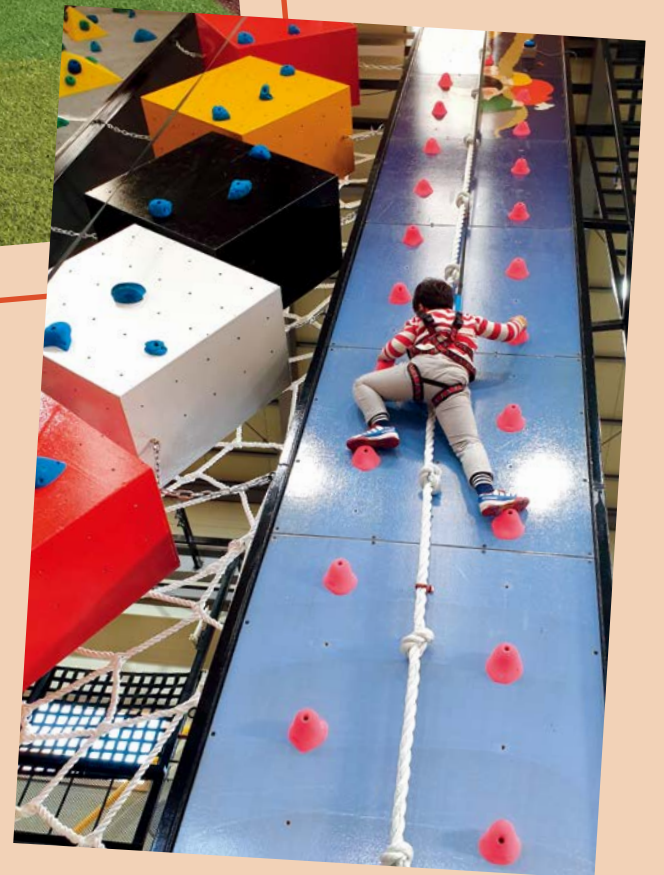
예쁜 단풍, 깨끗하고 높은 하늘, 적당히 선선한 날씨.
한파가 몰려오기 전 나들이 다녀오기에 딱! 좋은 계절, 가을.
먼 곳이 아니어도 좋다. 아끼는 사람과 함께라면 동네 산책도 행복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2018년의 가을을 넥센인들은 어떤 기억들로 채워 넣었을까?
부쩍 짧아져 질은 아쉬움을 남긴 지난 가을의 기억을 따라가 보자.

정리 이다영



마을까지 상쾌하게

넥센 동료들과 함께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에서 아이오닉 롱기스트런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크고 작은 마라톤 경기에
참여해보았지만 7km라 될 만한 거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동료들과 함께 많은
불거리와 추억을 쌓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 찍어준 금손 홍 대리님,
안 대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생산기술팀 박숙진 대리



실내에서 즐기는 액티비티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
주말에 실내 클라이밍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엔 소극적이더니 높이에 적응하고
나서는 혼자 꼭대기를 찍고 내려옵니다.
아이들 엄마가 갑자기 장비를 착용하더니
올라갑니다. 중간에 매달려 빙글빙글...
굴욕적인 사진 하나 건지고 왔습니다.
내구성능연구계 이영남

가을이 오기 전 먹방 캠핑

가을이 가기 전 지인들과
평창으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사장님의 배려로 넓은 사이트를
세 가족만 사용하여 너무 즐겁게
놀다 왔습니다. 평창은 송어가
유명해서 낮에는 송어회, 밤에는
화로에 고기며 마시멜로 등을
구워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많은 공기와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도 있었지만,
확실히 강원도는 밤에 너무
너무 추웠어요.
글로벌영업기획팀 정윤근 과장



할머니 댁 가는 길

가족과 함께 할머니 댁 방문!
할머니 댁 가는 길에 설악산
가서 단풍놀이도 하고 할머니와
강원도 물회도 먹으면서
대화하고, 바다 구경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강원도 강릉이 할머니 댁이라
휴가 갔다 온 느낌은 덤!
주말에 멀리 있는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건 어떠세요?
중아팀 김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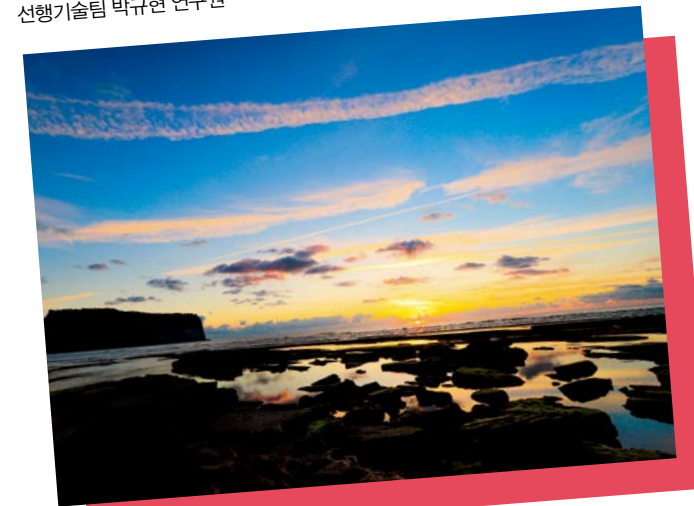
가을 남자의 필수 코스, 등산!

주말에 저는 팀원들과 함께 양산에 있는
천성산(922m)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과 단풍을 보면서 팀원들과 함께
가을 남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양)품질팀 박두진



자연을 담다

주말에 사진 동호회 친구들과 사진 찍으러 돌아다닙니다.
사진은 지난주 양산공장 휴무 때 휴가 내고 간 제주도에서
직접 찍은 일출입니다. 왼쪽에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광치기 해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선행기술팀 박규현 연구원



주말엔 가족과 함께

주말에는 가족과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곤 합니다.
이번 주에는 딸내미와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쁜 사진 찍어준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창)생산기술파트 박정현 대리



일상에 녹일 특별함

넥센인을 위한 문화생활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면 지겨울 수밖에 없다.
2019년 새해에는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부여해보자.

정리 이다영



칠갑산얼음분수축제

동화 나라 친구들이 모두 모여 칠갑산 겨울 왕국을 찾아온다. 충남의 알프스라는 명성에 걸맞은 하얀 설원의 풍광은 겨울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얀 낮뿐만 아니라 어둠이 내려오는 까만 밤에는 반짝반짝 화려한 옷을 갈아입은 야간개장이 시작돼 은하수 별빛 같은 놓칠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진다.

기간 2018년 12월 22일~2월 17일

장소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175-11

문의 041-945-0797~8



핑크퐁랜드 - 황금별을 찾아라 - 진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뮤지컬 <핑크퐁랜드>는 핑크퐁랜드의 사라진 황금별을 찾아 과자마을, 공룡마을, 바다놀이터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지루할 틈 없이 연속되는 동요와 영상, 신나는 율동이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들의 시선까지 사로잡는다. 핑크퐁, 아기상어, 튼튼쌤은 객석으로 나와 관객과 사진촬영도 한다고 하니 신나게 즐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자.

기간 1월 19일~1월 20일

장소 경남 진주시 강남로 215 (칠암동)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070-4284-8854

축제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

1급수에서 서식하는 산천어를 직접 잡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공공 언 얼음을 뚫고 산천어를 낚는 즐거움을 느껴보자. 잡은 산천어는 축제장 안에 위치한 산천어구이터와 화센터에서 바로 신선한 회, 구이, 찜으로 맛볼 수 있다. '얼음나라'라는 축제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게 눈, 얼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눈썰매, 봅슬레이, 얼음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산천어 낚시와 함께 즐겨볼 만하다.

기간 1월 5일~1월 27일

장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37

문의 1688-3005

공연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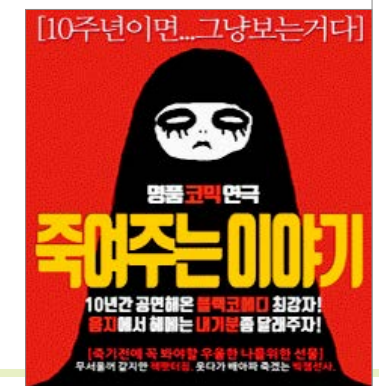
“당신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노처녀 초등학교 교사 강희가 텔레파시 능력자인 인터넷 수리기사 힘찬을 만나면서 우여곡절 러브스토리가 펼쳐진다. 진부한 소재지만 진부할 틈이 없다. 배우들의 출중한 연기력과 노래 실력도 극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한다.

기간 2018년 12월 14일~1월 27일

장소 부산시 해운대구 양운로 97 해운대문화회관

문의 051-749-7651



죽여주는 이야기

주인공이 '안락사'라는 ID로 운영하는 자살 사이트에 정체 모를 한 여자가 나타난다. 그녀가 ID '마돈나'로 활동하며 자살 상품을 살 듯 말 듯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가운데 '바보래용'이라는 ID를 사용하는 또 한 사내가 등장하면서 일이 점점 꼬여만 간다.

우울한 이야기를 전혀 우울하지 않게 풀어 웃음을 유도하는 이 연극은 관객 참여식으로 함께 진실을 파헤쳐가며 한순간도 시선을 땔 수 없게 만든다.

기간 오픈런

장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2 삼형제극장

문의 02-6326-1333



볼로냐 어린이 그림+책축제

이탈리아의 역사 깊은 도시 볼로냐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 도서 박람회 <볼로냐 아동 도서전>의 사무국과 협업하여, 대구MBC 특별전시장 오픈에서 <볼로냐 어린이 그림+책축제>를 개최한다. 볼로냐 라가치상에서 선정한 최고의 일러스트 작품들을 비롯해 다양한 일러스트 작품과 그림책을 만나볼 수 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체험 교육도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방문해보자.

기간 2018년 11월 3일~2월 6일

장소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대구MBC 특별전시장 오픈
문의 053-744-5400



골든아워

이국종 저 / 흐름출판

<골든아워>는 17년 동안 외상학과 의사로 살아온 이국종 교수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다. 의사가 본 냉혹한 현실, 고뇌와 사색, 의료 시스템 문제의식의 기록이 갈고 다듬어져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오랜 시간 외롭게 현실과 싸워온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생사의_갈림길 #외상외과_의사 #우여곡절 #냉혹한_현실



당신이 옳다

정혜신 저 / 해냄출판사

문재인 대통령이 이 책을 비행 중 읽었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에 게재해 하루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으로 진입한, 정신과 의사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 모든 인간은 치유적 존재이고, 그걸 깨닫는 순간 굉장히 강력한 치유제가 될 수 있다는 그녀는 자신의 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한다.

#공감 #치유 #행동지침서 #다정한_정신과_의사

전시

카카오프렌즈 컨셉 뮤지엄 서울

카카오 게임의 첫 번째 전시가 시작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모바일로만 접할 수 있었던 카카오 게임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즐길 수 있다.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레이싱 게임 '프렌즈 레이싱', PC MMORPG '검은사막 온라인' 등 3개의 게임으로 구성됐으며,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이들 게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기간 2018년 10월 6일~3월 31일

장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2 동교동대아빌딩 카카오프렌즈 컨셉 뮤지엄 서울

문의 02-6010-9104



세젤예展 in 부산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나'를 콘셉트로 한 SNS 감성의 트렌드 전시회 <세젤예展>이 부산에 상륙했다. 전시장 곳곳에 인생 샷을 남길 수 있는 독특하고 귀여운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으니 이참에 카카오톡, SNS 프로필 사진을 모두 바꿔보자.

기간 2018년 11월 9일~3월 31일

장소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58 서면미술관

책



걷는 사람, 하정우

하정우 저 / 문학동네

걷기는 트리플 천만 배우, 하정우라는 사람의 근간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에게 큰 의미가 부여된 행동이다. 하루에 3만 보, 심지어 10만 보까지도 걸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유별난 걷기 마니아 하정우는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걷기에 투자하는 걸까? 그가 풀어내는 걷기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하정우의 땀과 기도를 엿볼 수 있으며 그것은 특별한 감동으로 당신에게 전해질 것이다.

#10만보 #왜_걸어요? #걷기는_무엇? #하정우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허허당 저 / 예담

빈집이라는 뜻의 법명을 가진 허허당 스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상처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붓을 들고 시를 쓴다. 짧지만 강렬하고, 금방 잊히지만 마음에 남는다. 선 수행에 바탕을 둔 선화 작업의 결과물도 책에 실려 있으니, 시와 그림을 함께 감상하며 그가 전하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상처 #불이_나면_꺼질_일만_남고 #상처가_나면_아물_일만_남는다

나만의 한 단어

넥센 싱크빅

한 가지 사물을 보고 사람마다 떠올리는 느낌이나 생각은 제각각이다.
관점의 차이인 셈이다. 거기서 우리의 가능성은 시작된다.
언제 어디서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틀린 것은 없다. 다를 뿐이다. 넥센인들만의 기발한 의식 흐름을
공유해보자.

글 이다영

넥센 타이어

타이어
교체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빨간불

정지

행동

실천

에너지

Move
ment

운동

자원

자연

환경보호

새해
다짐

손흥민

축구

Goal!

북극곰의
눈물

※ 빈칸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채워서
사진 찍은 후
이메일(hellonexen@nexentire.com)로
그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기재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다 함께 실천해야 할 업사이클링 & 리사이클링



지구에 대한 예의, 잘 지키고 있나요?

‘이면지를 사용하고, 빗물을 받아 번기 수조에 넣어 쓰며, 외출할 땐 플러그를 빼자’는 이야기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자린고비 정신으로 시원시원하지 못하다고 여긴다면 이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는 자원과 환경에 대해 의식 있고 성숙한, 매우 멋진 행동이니까!

글 강옥진(월간 잡지 <행복이가득한집>) 기자

세상 멋진 것만 추구하는 곳이 패션 업계다. 그런데 최근 들어 몇몇 패션 기업이 쓰레기 매립지를 기웃거리고 폐기물을 모으고 있다. 팀버랜드는 지금까지 7천 8백만 개 이상의 페트병을 수거했다고 밝히며 이를 재활용해 프리미엄 부츠를 만들었고, 샘소나이트는 나일론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서 추출한 친환경 섬유로 만든 가방 ‘플랜트팩 컬렉션’을 출시했으며, 아디다스는 바다에서 수거한 폐 그물을 재활용해 ‘팔리 퓨처 크래프트 바이오패브릭’ 운동화를 선보이고 있다. 원단 수급부터 제작 과정까지 수많은 쓰레기와 오염 물질을 양산하며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린 패션 업계에서, 이제 환경과 윤리,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기업 의식은 소비자의 환심을 끌기 위한 필수 덕목이 된 것이다.

플라스틱과의 전쟁, 트렌드가 되다

2018년은 자원과 환경에 대한 의식이 좀 더 우리 일상 속으로 침투한 해다.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 퇴출 선언’의 충격이 컸다. 스타벅스 역시 ‘힙스터’처럼 세상의 유행을 선도하는 기업. 이 호감도 높은 기업의 소신 있는 결정은 대중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잇따라 디즈니, 이케아도 모든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중단을 선언했고, EU도 플라스틱 제로화를, 레고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블록 생산 중지를 발표했다. 바야흐로 인류는 플라스틱과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인류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업사이클과 리사이클이다. 버려진 것을 해체하고 재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업사이클.



그리고 버려진 것을 다시 또 사용하는 리사이클. 업사이클은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이너, 에코 아티스트 등 작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저스트 프로젝트는 국내 대표 업사이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과자 봉지를 엮어 파우치를 만들고 버려진 티셔츠로 리그를 만든다. 디자이너 문승지도 전시 〈쓰고, 쓰고, 쓰고, 쓰자〉를 통해 버려진 캔을 녹여 만든 의자, 일회용 컵과 이면지로 만든 화분 등 업사이클의 좋은 사례를 제시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구하고, 간단하게는 페트병을 잘라 밀동을 연필꽂이로 쓰거나 화분으로 활용하는 식의 일상 속 소소한 업사이클링에 도전해봐도 좋을 듯하다.

누구나 트렌드세터가 될 수 있다

무언가를 만들어낼 손재주도, 그럴 시간도 없다면? 리사이클, 특히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해서 버리는 것만 실천해도 큰 도움이 된다. 리사이클은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다시 사용하는 자원 절약의 의미도 있지만, 플라스틱, 비닐, 캔류를 그대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크다. 하지만 분리 배출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다. 우선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행구어 말린 후, 용기에 붙은 스티커나 라벨 비닐을 다 떼고 내놓아야 의미가 있다. 말 그대로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버려야 진짜 재활용에 일조하는 것. 그러지 않고 대충 분류해서 버리는 건 결국 타인에게 수고를 미루는 무책임하고 미성숙한 행동이다. 분리 배출을 그렇게 꼼꼼히 해야 하는 것이었냐며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잘 몰랐던 게 당연하다. 돌아해보면 우리는 쓰레기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각하며 산 지 그리



Writer

강옥진

월간 잡지 〈행복이가득한집〉 패션뷰티팀 기자. 매년 10월, 처음부터 끝까지 친환경 이슈를 다루는 '자연이가득한집' 특집호를 만들면서, 에코 디자이너를 만나고 책임 있는 기업을 찾아 취재하다 보니 자연스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졌다. 무엇보다 매 순간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배출하고자 노력한다. 아직은 의지가 약해질 때가 많지만, 점점 나아질 거라 기대하며 매일 아침 각성하고 또 각성한다.

오래되지 않았다. 규격 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본격 시행한 것도 1995년, 불과 20여 년 전의 일. 그러나 현재 기성 세대 다수는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버리기'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 때때로 헤어스프레이, 칫솔, 우산 등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만든 '내 손안에 분리 배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업사이클 혹은 리사이클을 실천하기 이전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쓰레기 배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자.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걸 쉽게 버린 않았는지, 버릴 땐 제대로 버렸는지, 비닐·플라스틱 포장재가 한가득 소모되는 온라인 쇼핑을 즐긴 건 아닌지, 물건을 보관할 때 일회용 비닐팩을 쓰진 않았는지, 일회용 컵과 빨대를 몇 개나 썼는지... 지구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무심코 소비했던 일상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한 번 더 생각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텀블러나 머그컵을 쓰고, 휴지나 물티슈 대신 손수건이나 걸레를 쓰는 불편함을 감수할 의지, 나아가 쉽게 버릴 물건은 굳이 사지 않을 다짐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점차 실천하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다.

옳다고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인간의 도리다. 거창한 이념도 아니고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는 다시 쓸 수 있는 상태로 수거함에 넣는다는 기초 중 기초의 도리, 지키며 사는 게 옳은 것 아닐까? ㉞



움직임에 가치를 담아 내일을 함께하는 우리

방향이 중요한 만큼 속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은 미래에
조금 더 닿아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과 서비스!
타이어테크 현풍점

창녕공장 인근 지역을 대표할 매장으로 탄생한 타이어테크 현풍점. 타이어거리가 조성되고 있는 이 일대에서 중심이 되어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현풍면이 읍으로 승격됐고 인근에 신도시가 조성 중이어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매장이다. 약 926㎡(280평)의 넓은 부지를 갖춰 수용 규모가 큰 현풍점은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서비스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글 조병례 사진 이명호



김민성 대표 : 지난해 11월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생 매장 타이어테크
현풍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녕공장 가까이에 위치하니 대구, 창녕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허서경 대리 : 안녕하세요. 책임감
을 갖고 정성을 다하는 저희 현풍
점에 오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경
험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꼼꼼
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김민성 대표 : 신생 매장이라 홍보를 위해 인근 아파트를 돌며 직접 전단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십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온라인 카페 '넥센타이어 현풍점'도 운영 중이니 타이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대답해드립니다.



허서경 대리 : 언제나 친절하고 정확한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깨끗한 매장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으니, 방문하시면 편안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경력의 대표님께 전수받은 기술로 환상의 호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성 대표 : 많은 고객들이 넥센타이어의 AH8, AU5, AU7을 찾습니다. 마모율이 낮고 저소음 타이어라는 확실한 장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풍점은 가격 면에서도 언제나 자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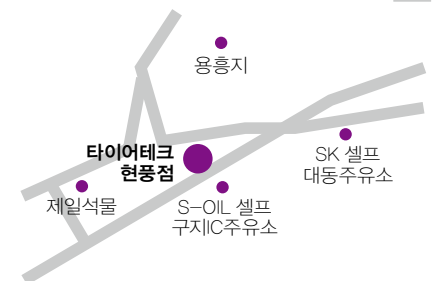
허서경 대리 : 타이어 점검 후 마무리 작업을 할 때는 항상 교차 확인을 거칩니다.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혼자 하기 힘든 엔진 세척도 맡겨만 주세요.



김민성 대표 : 현풍점은 2월부터 연중무휴, 365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허서경 대리 : 늘 즐겁게,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고객님들께도 그 마음이 전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소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국가산단북로 366-1
 영업시간 08:00~20:00
 (1월까지 매주 일요일 휴무, 2월부터 매일)
 문의 053-614-0908

환경안전팀, 경남 소방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양산공장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글 (양)환경안전팀 박지호 과장

넥센타이어 양산공장이 2018년 10월 25일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개최된 '제2회 소방 안전 관리자 등 경진대회'에서 종합 1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평상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 점검 능력과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대회는 경남소방본부 주최로 각 사업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 점검 능력을 강화해 소방 시설의 상시 정상적인 작동을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자위소방대가 초기 진화 및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대응해 대형 화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남동발전, 한국화이바 등 경남의 각 시·군을 대표하는 기업 18팀 100여 명이 참가했다. 양산을 대표한 넥센타이어 양산공장은 환경안전팀 박유만 팀장, 김병주 과장, 박지호 과장, 홍준우 과장(현, 마곡기업문화팀), 안성완 대리 5명이 참가해 소방 시설 작동 기능 점검, 옥내소화전 속도방수, 인명구조, 심폐소생술 등 4개 종목에서 경연을 펼쳐, 전 종목 고득점을 획득하여 당당히 종합 1위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㉞

(양)환경안전팀 박유만 팀장 한마디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훈련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동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갖고 닦은 교육훈련 덕분에 이번 경진대회 최우수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훈련만이 나와 동료와 회사를 구하고 우리 후배들의 일터를 보존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겠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열심히 경진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환경안전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넥센타이어의 자랑

국가품질명장 1호 탄생

양산공장 생산2팀 가류파트 손석재 직장이 넥센타이어 역사상 첫 번째 국가품질명장으로 인정받았다. 오랜 노력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탄생한 명장으로, 그의 수상은 동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글 (양)TPM파트 김광민 대리



넥센타이어에서 첫 번째 국가품질명장이 탄생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양산공장 생산2팀 가류파트 손석재 직장이 국가품질명장으로 선발됐다. 국가품질명장이란 생산현장에서 일정 기간 근속하고, 분임조 활동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현장 근로자 및 현장 지도사원으로서 분임조 활동과 제안 활동, 공정 또는 품질 개선, 환경 친화적 생산 활동, 품질 비용시스템 구축/운영, 사회봉사 및 국가 품질경영 발전에 기여한 모범적인 근로자 중 선발한다. 이를 위해 서류심사, 현지(면접)심사 및 시험, 위원회 심의,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의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 2018년에는 전국에서 근로자 22명이 ‘국가품질명장’ 증서를 수여했다. 손석재 직장은 “명장으로 인정받기까지 TPM 사무국 등 동료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넥센타이어에서 더 많은 품질명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저도 힘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㉞

손석재 직장 주요 이력

- 1988년 3월 21일 : 넥센타이어 (당시 미쉐린 코리아) 입사
- 1996년 7월 16일 : 직장 승진
- 2012년 12월 5일 : 제49회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
- 2018년 11월 28일 : 제44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명장 선정 (대통령상)



1. 사내·외 품질경영 활동

TPM 혁신 활동을 도입한 2007년부터 가류파트 키맨(Key-Man : 혁신 활동의 주체)이 되어 분임조 활동과 사내 품질경영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

- 2012년 제49회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장 수상
생산성 향상과 품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 인정
- 2016년 국제품질분임조경진대회 (ICQCC:International Convention on Quality Control Circle) Gold Award 수상
가류파트 C1 분임조장으로 출전수범하여 개선 활동을 진두지휘함
-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3회 (금상 1회, 은상 2회)
지도사원으로서 노하우 전수 및 분임원들의 사기 독려(2011년 힘모아 분임조 : 은상, 2013년 C1 분임조 : 금상, 2014년 가마술 분임조 : 은상)

2 사회공헌 활동

(최근 2년간 23회/76시간 봉사활동 실시)

- 개인 : 유니세프 정기 기부활동(1회/월), 도서관 및 각종 축제 자원봉사활동
- 단체 : 넥센타이어 직장회 소속으로 양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 및 기부활동

NEWS

글로벌 완성차 폭스바겐에 신차용 타이어(OE) 공급



지난해 12월 넥센타이어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의 '제타' 차량에 '엔프리즈 AH8' 제품을 신차용 타이어(OE)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의 '제타' 차량은 1979년 출시 이후, 1700만 대 이상 팔린 장수 모델이자 베스트셀링 모델이며, 고급스럽고 넓은 실내 공간을 바탕으로 최신 하이테크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어 우수한 활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넥센타이어의 '엔프리즈 AH8'은 사계절용 고성능 타이어로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최적화된 주행 성능을 구현한 제품이다. 또한 상어지느러미를 연상시키는 패턴 디자인에 소음 저감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정숙성과 승차감까지 조화를 이룬 것이 장점이다. 더불어 멀티 트레드 기술을 적용해 최적의 그립감과 우수한 연비 성능을 동시에 갖췄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최근 독일에 위치한 유럽 R&D센터 및 영업부서 통합 이전, 체코에 위치한 유럽 공장 가동 예정 등 유럽 내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한 프리미엄 카 메이커들과의 접근성 향상을 바탕으로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확대해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NEWS

히어로즈와 함께한 지난 9년간의 여정 담은 감사 광고 선보여



넥센타이어가 지난 9년 동안 히어로즈와 함께한 여정을 담은 감사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2월 진행된 광고에서는 2010년부터 9년의 메인 스폰서 기간에 넥센타이어, 히어로즈 구단, 그리고 팬들이 함께 만들었던 감동적인 순간들을 '같이'라는 주제로 그려냈으며, 함께하는 동안 더욱 강해진 넥센의 모습을 강조했다. 또한 넥센타이어의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히어로즈와의 메인 스폰서십 종료는 마지막이 아닌 넥센타이어의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라는 기대감을 알렸다.

강호찬 Global CEO는 “광고 주제와 같이, 히어로즈의 메인 스폰서로서 9년간 한국 프로야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성원해주신 팬분들에게 감사하는 취지로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히어로즈 메인 스폰서를 마치는 공식 입장문에서 “넥센히어로즈와 함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승리를 향해 함께 뛰고 함께 웃으며, 동반 성장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더욱 사랑받는 기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EWS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2018’ 본상 수상



지난해 10월 넥센타이어가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2018’에서 ‘윈가드 스포츠2 WU7 (WINGUARD SPORT2 WU7)’ 제품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는 1957년 제정된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으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받는다. 제품의 디자인, 사용성,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하며, 수상작에는 ‘G-Mark’를 부여하는 디자인상이다.

‘윈가드 스포츠2 WU7’은 겨울 순록과 스키 플레이트 형태를 콘셉트로 겨울철 눈길에서 최적의 주행을 실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수한 3D 사이프(타이어 표면의 미세한 홈)와 지그재그 형상의 디자인을 적용해 눈길과 빙판길에서 우수한 그립력을 제공하는 겨울용 프리미엄 타이어라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넥센타이어 천경우 연구개발BG장은 “이번 디자인 어워드에서의 수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디자인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의 성능 향상은 물론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품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 페스티벌서 KBS 교향악단 후원



넥센타이어가 체코의 ‘루돌프 프리쿠스니 피아노 페스티벌’에 참가한 KBS 교향악단의 공연을 후원했다.

체코 프라하에서 지난해 11월 25일에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음악 행사로, 세계 각국 유수의 오케스트라가 대거 참여했다.

넥센타이어는 유럽 시장 강화를 위해 체코 ‘자테츠’ 지역에 유럽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며, 이번 KBS 교향악단 공연 후원을 통해 양국 간의 문화 교류 및 우호 협력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한국 대표로 이번 행사에 초청받은 KBS 교향악단은 ‘한국 최고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번 페스티벌 무대를 시작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내 3개 도시를 돌며 순회공연도 진행했다.

강호찬 Global CEO는 “체코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서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 마케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넥센타이어는 독일 내 영업사업부와 R&D센터를 통합 이전했으며, 향후 유럽 공장의 본격 가동을 계기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현재 유럽 지역 의 포르쉐, 피아트, 르노, 폭스바겐 그룹 등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㉞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 우리 팀 및 동호회 자랑하기
- ▶ 가족과 특별한 시간 보내기
- ▶ 동료와 함께 추억 만들기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독자 게시판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R코드를 확인하시면
독자 게시판으로 연결됩니다.

〈헬로우 넥센〉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문화혁신팀 김희진 대리
hellonexen@nexentire.com

넥센 싱크빅 당첨자 *괄호는 선정된 답변임

이준성
방진일
진명수 (가족)
문재웅 (혁신)
이희석 (월드클래스 탑10)



MOVE BRILLIANTLY



NEXEN TIRE

당신이 찾는 프리미엄 그 이상의 가치

N FERA AU7

PREMIUM-COMFORT ULTRA HIGH PERFORMANCE



NOISE REDUCTION SYSTEM
저소음 흡음재 적용 시스템

프리미엄 드라이빙을 위한 엔페라 AU7만의 7가지 혁신 테크놀로지

TECHNOLOGY 1

숫자 7을 모티브로 한
감각적 스타일의
패턴 디자인 밸런스

TECHNOLOGY 2

최상의 소음성능과
저 진동 설계로
탁월한 승차감

TECHNOLOGY 3

내구성 향상을 위한
3D 사이프 적용으로
강력해진 트레드

TECHNOLOGY 4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폭우에 대비한
뛰어난 배수성능

TECHNOLOGY 5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
강력한 윈터성능

TECHNOLOGY 6

공명을 저감용
흡음재 적용으로
획기적인 소음저감

TECHNOLOGY 7

펄크가 나도
드라이빙은 계속된다
넥센스마트씰 적용

※ 일부 규격에 한함

NEXEN NEXEN TIRE